

Title: Obadiah part 1

Scripture: Obadiah 1

Date preached: September 12th 2021**Scripture: Obadiah 1****The vision of Obadiah.****Thus says the Lord GOD concerning Edom****(We have heard a report from the LORD,****And a messenger has been sent among the nations, *saying*,****“Arise, and let us rise up against her for battle”):**

1 이것은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신 오바다의 예언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사자를 여러 나라에 보내셨다. 우리는 그의 사자가 “일어나라. 에돔을 치러 가자!”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Introduction

Well today we begin a new short study on what is perhaps a book you are not very familiar with. As I did some research I came across a website in which the author Jeffrey Kranz ranked the least popular books in the bible. His rating system was based on how often people look, for or read the book on the well-known bible software platform Bible Gateway. Surprise, the least read or searched for book in all the bible is Obadiah. Poor Obadiah!

It's quite likely therefore that you have never heard a pastor preach on it and may know nothing about it. It's the shortest book in the Old Testament and as a result is easy to skip or pass over. You may have been tempted to think that at only 21 verses long what possible value could it possess? It's just one of those strange books of prophecy that we glance at from time to time and think that it has nothing to say to us today. I'm sure none of you would ever have these kinds of thoughts. We know, or at least I hope you know that all of God's precious revelation to us is of value and importance. As the Apostle Paul tells us;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and is profitable for doctrine,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2 Timothy 3:16)

Note the first word there. It is the word “all” or *pasa* in the Greek. It means just what it means in English; the whole, every part, everything, all of it. I certainly believe that to be true. And that is why we are going to spend some time looking and learning from Obadiah. Before we start to look at what Obadiah tells us we need to step back and look at what exactly it is we are reading. Just like investigative journalists we want to know the who, what, when where and why's of what we are reading. The kinds of questions we should ask about any part of the bible are as follows,

- Who wrote it?
- What kind of writing is it?
- When and where was it written?
- Why did the writer write it?
- Why is it still relevant for us too today?

Answering these kinds of vital questions helps us better understand what we are reading. We can better appreciate the writer, the people he was writing to and the historical circumstances that shaped the writing. So that is the plan for this study. We are going to answer these important questions so that next time and in the weeks to come we can dig into and better understand the text.

자,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책에 대한 새로운 짧은 연구를 시작합니다. 조사를 하던 중 저자 Jeffrey Kranz 가 성경에서 가장 인기 없는 책의 순위를 매긴 웹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평가 시스템은 사람들이 잘 알려진 성경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Bible Gateway 에서 책을 얼마나 자주 찾거나 읽는지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적게 읽거나 검색된 책은 오바다입니다. 불쌍한 오바다! 그러므로 당신은 목회자가 그것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할 가능성이 큼니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기 때문에 건너 뛰거나 건너 뛰기 쉽습니다. 당신은 단지 21 절 길이로 그것이 어떤 가능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따금 훑어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예언의 책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나는 여러분 중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귀중한 계시가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는 적어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16) 거기에 있는 첫 번째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그리스어로 "모두" 또는 파사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영어로 의미하는 바를 의미합니다. 전체, 모든 부분, 모든 것, 모든 것.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바다를 보고 배우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오바다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기 전에 뒤로 물러나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탐사 저널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이 누구, 무엇, 언제, 왜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해 물어야 할 질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누가 썼습니까?
- 어떤 글인가요?
- 언제 어디서 작성되었습니까?
- 작가가 쓴 이유는?
-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련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종류의 중요한 질문에 답하면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작가, 그가 편지를 썼던 사람들, 그리고 그 글을 형성한 역사적 상황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연구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과 앞으로 몇 주 안에 본문을 파고들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중요한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Author

The first logical questions we need to ask are, who wrote this book and what do we know about the author? Naturally we believe that the Holy Spirit is the divine author of scripture, but we also believe that God chose to work through human authors. We know from verse one that the author's name is Obadiah. The name Obadiah means "servant or worshipper of God." Some think that this is not a proper name and is just symbolic of the person's attitude. So some say we might think of this book as the prophecy of a "servant of God." This would make the book unique as all the other prophetic books are named after the prophet. Therefore I think that what we are reading here is the prophecy of a man named Obadiah.

The name Obadiah was a common one in Old Testament times, and we have 13 mentioned in scripture. Sadly aside from his name we know almost nothing else about him. Unlike some of the other Old Testament prophets we are not told who his father was, what his occupation was, or even when and where he lived. He is we might say something of a mystery figure.

However with that being said I think we can make two important observations. The first is somewhat obvious, God chose this man to receive a divine prophecy or vision. We know that he received at least one, and maybe more visionary revelations from God. The second is perhaps less obvious especially as we are reading the prophets words in a second language. It is that the writer possessed significant literary talent. His prophetic writing shows the skills of imagery, rhetorical questions, irony, repetition, and various forms of parallelism (the balance between two or more similar words, phrases or clauses). Now that we know a little about the author lets move on to consider when, where and to whom Obadiah was written.

우리가 던져야 할 첫 번째 논리적 질문은 이 책을 쓴 사람과 저자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성령이 성경의 신성한 저자라고 믿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해 일하기로 선택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1 절에서 저자의 이름이 오바다임을 압니다. 오바다라는 이름은 “하느님의 종 또는 숭배자”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적절한 이름이 아니며 단지 그 사람의 태도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하느님의 종”에 대한 예언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예언서들이 예언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기 때문에 이 책을 독특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여기에서 읽고 있는 것이 오바다라는 사람의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바다라는 이름은 구약 시대에 흔한 이름이었고 우리는 성경에 13 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슬프게도 그의 이름을 제외하고 우리는 그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과 달리 우리는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심지어 언제 어디서 살았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신비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관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다소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여 신성한 예언이나 환상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계시를 받았고 아마도 더 많은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두 번째는 아마도 우리가 제 2 언어로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을 때 덜 분명할 것입니다. 작가가 상당한 문학적 재능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의 예언적 글쓰기는 이미지, 수사학적 질문, 아이러니, 반복 및 다양한 형태의 평행법(두 개 이상의 유사한 단어, 구 또는 절 사이의 균형)의 기술을 보여줍니다. 이제 저자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으므로 오바다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기록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When, where and to whom was Obadiah written

As is often the case when it comes to dating books of the bible there is much discussion and debate. It would have made things so much easier if the prophets had written the date at the top of the page. Sadly the prophet did not state when and where he received his vision.

In order to try and ascertain the date we must look at clues given in the writing. Sometimes people's names, especially kings or rulers or known historic events can help us pinpoint roughly when a book was written. We know for example that King Herod the Great was king from 37 BC- 4 AD. We are told in Matthew's gospel that Jesus was born during his reign. Given this we have boundaries which help narrow down when Jesus was born. He couldn't have been born later than 4 BC!

When it comes to Obadiah the key historic event mentioned involves the city of Jerusalem. This can get very detailed and complex. So let me try to give you the simple explanation. In verses 11 to 14 the writer talks about foreign invaders entering and capturing Jerusalem. Unfortunately this happened on a number of occasions which means determining which invasion is meant is not easy. However scholars have put forward two specific invasions that seem to closely match the descriptions given by Obadiah. Either he is referring to;

1	The rebellion of Edom against Judah during the reign of Jehoram	853-841 BC
2	The Babylonian attacks on Jerusalem	605-586 BC

After looking at the arguments carefully for both dates I am most inclined to think that the Babylonian attacks somewhere around 586 BC seems most likely. Fortunately it is not necessary for us to know the exact event Obadiah is referring to in order to understand his prophecy. What about the place in which the book was written? Can we determine where the book was written?

Sadly it is again almost impossible to pinpoint where Obadiah was when he wrote his book. However since Obadiah's concern was the Edomites' rejoicing over an invasion of Jerusalem, it seems probable that the prophet lived in the Southern Kingdom of Judah and perhaps in Jerusalem itself. Let us next turn to think about the original book's recipients. Who was Obadiah writing to.

Who was it written to?

No particular person or group is mentioned in the prophecy. However as the prophet is writing in Judah and his prophecy concerns people living in either Jerusalem or Judah it seems logical to assume that God intended it for the people of Judah. Let us turn next to look at the genre or type of writing it is.

성경의 데이트 책에 관해서 종종 그렇듯이 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페이지 상단에 날짜를 기록했다면 일이 훨씬 쉬워졌을 것입니다. 슬프게도 선지자는 자신이 시현을 받은 시기와 장소를 밝히지 않았습니 다.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글에 주어진 단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의 이름, 특히 왕이나 통치자 또는 알려진 역사적 사건은 책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롯 대왕이 기원전 37년에서 서기 4년 사이에 왕이었음을 압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의 통치 중에 탄생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우리는 예수가 태어났을 때 좁히는 데 도움이 되는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기원전 4년 이후에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오바댜와 관련하여 언급된 주요 역사적 사건은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상세하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11-14 절에서 저자는 외국 침략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함락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불행히도 이것은 여러 번 발생하여 어떤 침략을 의미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오바댜의 설명과 거의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특정한 침략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언급하거나;

1 여호람 통치 기간 동안 유다에 대한 에돔의 반역 기원전 853-841 년

2 바벨론의 예루살렘 공격 기원전 605-586 년

두 날짜에 대한 논거를 주의 깊게 살펴본 후 나는 바빌론의 공격이 기원전 586년경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바댜가 그의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 언급한 정확한 사건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책이 쓰여진 장소는 어떨습니까? 책이 어디에서 쓰여졌는지 알 수 있습니까? 슬프게도 오바댜가 그의 책을 썼을 때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지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바댜의 관심은 예루살렘 침공에 대한 에돔 사람들의 기쁨이었으므로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과 아마도 예루살렘 자체에 살았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본 책의 수신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바댜는 누구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누구에게 쓰여졌습니까? 예언에는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유다에서 기록하고 그의 예언이 예루살렘이나 유다에 사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위해 그것을 의도하셨다고 가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글의 장르나 유형을 살펴 보겠습니다.

What kind of writing is Obadiah?

The book of Obadiah is the shortest book in the Old Testament. It is the only single chapter book in the OT. In the entire bible only 2nd and 3rd John and Philemon are shorter. In terms of length it is 21 verses long and in the NKJV has 666 words. In its original Hebrew it is even shorter at 440 words. It is the 31st book of the Old Testament and the fourth of what we term the 12 minor prophets. I'm sure you know but let me remind you that they are called minor because the prophecies they recorded were shorter than the prophecies of Isaiah, Jeremiah, and Ezekiel (the “major prophets”). It is not a reflection on their value, importance or significance. Don't forget that nothing in God's revelation is without huge significance and importance.

The primary genre of Obadiah is prophecy and it is written mostly in the form of Hebrew poetry, though it does contain some prose. It follows a common practice of giving a wise announcement or prediction (an oracle) of judgment followed by a prediction of salvation or deliverance.

오바다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구약에서 유일한 단일 장 책입니다. 전체 성경에서 요한 둘째와 셋째 요한과 빌레몬만이 더 짧습니다. 길이 면에서 그것은 21 절이고 NKJV에는 666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440 단어로 더 짧습니다. 구약성경의 31 번째 책이자 우리가 12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책 중 4 번째 책입니다. 나는 당신이 알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그들이 기록한 예언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주요 선지자”)의 예언보다 짧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소선언자로 불렀음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치, 중요성 또는 중요성에 대한 반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에는 큰 의미와 중요성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바다의 주요 장르는 예언이며 일부 산문을 포함하지만 대부분 히브리시의 형식으로 기록됩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선언이나 심판의 예언(신탁)을 하고 구원이나 구원에 대한 예언을 하는 일반적인 관행을 따릅니다.

Outline of the book

We can neatly divide the book into three parts.

1	Day of destruction 파괴의 날	Judgement against Edom is prophesied 에돔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다	1-9
2	Day of shame 수치의 날	The reason for God's judgment is revealed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10-14
3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	What will be the result of God's judgement is revealed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드러날 것입니다	15-21

What's its purpose – Why did God speak to Obadiah?

God spoke to Obadiah to announce the destruction of Edom because of her pride and sin against Judah. The Edomites had treated His chosen people badly and God would not accept that. Obadiah is one of only three prophets who pronounced judgment primarily on other nations (Nahum and Habakkuk are the others). The prophet also wants to comfort and reassure Judah by announcing Edom's destruction and reminding them of Judah's restoration and deliverance in the Day of the

Lord.

It's message is still relevant today. We are surrounded by hostile enemies who delight at our troubles. However if we stay true to God He will protect and one day reward us. Equally, He will judge and punish those who delight in persecuting His children. Let us move on to talk about the historical setting for the book.

하나님은 오바다에게 유다에 대한 오바다의 교만과 죄로 인한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택한 백성을 나쁘게 대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오바다는 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해 심판을 선언한 세 명의 예언자 중 한 명입니다(나훔과 하박국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는 또한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고 여호와와의 날에 유다의 회복과 구원을 상기시켜줌으로써 유다를 위로하고 안심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기뻐하는 적대적인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충실하면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언젠가는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을 박해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벌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책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Historical setting

In order to understand what Obadiah is writing we need to take a little history lesson. I love biblical history but I know not everyone shares my passion. I'll try therefore to make it as interesting as possible. To understand Obadiah we need to know about two brothers and the lines of ancestry that flowed from them. From one brother came the Edomites, the bad guys in the story, from the other brother came the nation of Israel, the good guys in the story.

To read their story we need to go to the book of Genesis. In chapter 25 we read about Isaac and his wife Rebekah having twin sons. The firstborn son was red and hairy, and they named him Esau. The second son was the crafty and cunning Jacob. The two boys were destined almost from birth to disagree and struggle with one another. No one was surprised by this because God had told Rebekah before they were born that this would be the case.

“Two nations are in your womb, Two peoples shall be separated from your body; One people shall be stronger than the other, And the older shall serve the younger.” (Genesis 25:23)

When the two boys had grown to be men Esau sold his birthright to Jacob for a bowl of red stew. From this moment on Esau hated his brother. The brothers would go on to be the fathers of two nations. Jacob the father of the Israelites and Esau the father of the Edomites. Just like the two brothers both nations would despise the other and would continue to fight and struggle throughout history.

Esau's descendants eventually dominated the southern lands and made their living by agriculture and trade. One of the ancient trade routes, the King's Highway passed through Edom, and this made the Edomites wealthy and powerful.

When the Israelites requested permission to use the route on their exodus from Egypt, they were rejected by force. Even though they shared a common ancestry the Edomites were bitter and hard-hearted towards God's people. Despite their poor treatment by the Edomites the Israelites were forbidden from hating them.

“You shall not abhor an Edomite, for he is your brother. You shall not abhor an Egyptian, because you were an alien in his land. (Deut 23:7)

The Edomites did not share these sentiments however.

They regularly attacked Israel and many battles and wars were fought between them. King Saul led attacks against the Edomites and eventually 40 years later King David captured Edom and stationed an army there. Edom became a vassal state. After a great deal of struggle Edom eventually gained her freedom from Judah, in 845 BC, by rebelling against Jehovah.

Israel then partially recaptured Edom between 790-770 BC. Following this the Edomites revolted and attacked Judah a second time, during the reign of King Ahaz of Judah (2 Chron. 28:17). Finally, when King Nebuchadnezzar attacked Judah in 586 BC, the Edomites assisted the Babylonians. Jerusalem and Solomon's temple were destroyed. Edom, as a closely related nation, should have helped Judah's refugees. But instead of offering sympathy and help in their time of need, Edom happily handed the Israelites over to the conquering Babylonians. The Edomites even murdered some of the refugees.

Such treachery to a related nation could not be ignored by God. God gave Obadiah a stern message for Edom, a warning of God's judgment on them for their terrible treatment of the people of Judah. The Edomites' pride and sense of self security became their downfall. Their fortress capital of Sela (known today as Petra), which they considered unconquerable, became their tomb. Their Arab neighbors turned on them, taking over their land and their livelihood. The Edomites were pushed into what had been southern Judah. In the second century BC, and the resurgent Jewish kingdom under the Maccabees conquered the Edomites and forcibly converted them to Judaism. They became known as the Idumeans. If you are very familiar with bible history you might remember a very famous New Testament king who was an Idumean. I'm talking about king Herod the Great who became king of Judea in 37 BC.

Ironically the Edomites who cheered when Jerusalem was destroyed in 586 BC were fighting for Jerusalem as Idumeans in 70 AD when Jerusalem was again destroyed. After this the Edomites vanished from history. There we go! I've given you a very brief overview of the book of Obadiah. We can now begin our study by looking at verse 1.

오바다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약간의 역사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성경의 역사를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이 내 열정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가능한 한 흥미롭게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다. 오바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형제와 그들에게서 나온 가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한 형제에게서는 이야기에 나오는 악당인 에돔 사람들이, 다른 형제에게서는 이야기에 나오는 선한 사람들인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려면 창세기로 가야 합니다. 25 장에서 우리는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을 낳는 이야기를 읽습니다. 맏아들은 붉고 털이 나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교활하고 교활한 야곱이었습니다. 두 소년은 태어날 때부터 서로 동의하지 않고 투쟁할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두 민족이 네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네 몸에서 나오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25:23)

두 소년이 장성하자 에서는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이때부터 에서는 형을 미워했습니다. 형제들은 계속해서 두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과 에돔의 조상 에서. 두 형제처럼 두 나라는 서로를 멸시하고 역사를 통해 계속 싸우고 투쟁할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결국 남쪽 땅을 지배했고 농업과 무역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고대 교역로 중 하나인 왕의 대로는 에돔을 통과했고 이로 인해 에돔 사람들은 부유하고 강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은 강제로 거절당했습니다. 에돔 족속은 같은 조상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원한과 완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밭로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희 형제임이니라. 너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너는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신명기 23:7)

그러나 에돔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들 사이에 많은 전투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사울 왕은 에돔 사람들에 대한 공격을 주도했고 결국 40년 후에 다윗 왕은 에돔을 함락시키고 군대를 그곳에 주둔시켰습니다. 에돔은 속국이 되었다. 많은 투쟁 끝에 에돔은 결국 BC 845년에 여호와께 반역함으로써 유다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790-770년 사이에 부분적으로 에돔을 탈환했습니다. 그 후 에돔 사람들은 유다 왕 아하스의 통치 기간에 반란을 일으켜 두 번째로 유다를 공격했습니다(대하 28:17). 마침내 기원전 586년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 에돔 사람들은 바빌론을 도왔습니다. 예루살렘과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에돔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나라로서 유다의 피난민들을 도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동정과 도움을 주는 대신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바빌론 사람들에게 기꺼이 넘겨주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피난민 몇 명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친족에 대한 그러한 배신은 하나님께서 무시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바다에게 에돔에 대한 엄중한 기별을 주셨으며, 이는 그들이 유다 백성을 끔찍하게 대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에돔 사람들의 교만과 자만심이 그들의 몰락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복할 수 없다고 여겼던 요새의 수도 셀라(오늘날 페트라로 알려짐)가 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랍 이웃들은 그들에게 등을 돌렸고 그들의 땅과 생계를 장악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남쪽 유다 땅으로 밀려났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 마카베오(Maccabee) 휘하의 유대 왕국이 부활하여 에돔 사람들을 정복하고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시켰다. 그들은 이두메아인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성경 역사에 아주 익숙하다면 이두메 왕이었던 아주 유명한 신약의 왕을 기억할 것입니다. 나는 기원전 37년에 유대의 왕이 된 헤롯 대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환호하던 에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다시 멸망된 주후 70년에 이두매처럼 예루살렘을 위해 싸웠다. 그 후 에돔 사람들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갈! 나는 당신에게 오바다서에 대한 아주 간단한 개요를 주었습니다. 이제 1절을 보면서 연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Verse 1

**The vision of Obadiah. Thus says the Lord God concerning Edom
(We have heard a report from the LORD,
And a messenger has been sent among the nations, saying,
“Arise, and let us rise up against her for battle”):**

Verse one begins by succinctly telling us what we are reading. This is the shortest title for any OT book. What we are reading is a vision a chazon (khwa-zon) that was received by Obadiah. Vision is used here, and in other places in the OT to describe a communication or revelation that comes directly from God. What Obadiah is receiving is coming from Yahweh the sovereign God all nations. We are then told that what the prophet is about to reveal concerns Edom.

As we have seen Israel and Edom were close but very unfriendly neighbours. That this vision concerns Edom is unusual as typically God sends a prophet to deliver a message to His chosen people. Jonah of course would be another instance of a prophecy for another people. Next we are told that Obadiah has received a “news” report from God. It seems that Edom's enemies are joining forces against her. In the ancient world messengers or envoys would be sent between nations to bring news or call for support. We are then to picture messengers traveling to nations surrounding Edom telling them to prepare their armies for war. Edom's time is up. Soon she will be judged and then destroyed. There is no indication that God is prompting this but as we know God often uses natural means to bring about His will. He used the Babylonians for example to bring judgement on Israel.

The downfall and destruction of Edom has been decided. Next time we will see what God has planned for Edom.

오바다의 환상.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는 주님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여러 나라들 사이에 보내어 말하였다. "일어나 우리가 일어나서 그를 치자"):

1 절은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을 간결하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모든 구약 책의 가장 짧은 제목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오바다가 받은 환상 카손(화존)입니다. 비전은 여기에서 그리고 구약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전달이나 계시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오바다가 받는 것은 만국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선지자가 에돔에 관해 계시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과 에돔은 가까웠지만 매우 불친절한 이웃이었습니다. 이 환상이 에돔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시기 때문에 이례적인 것입니다. 물론 요나는 다른 백성을 위한 예언의 또 다른 예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오바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소식” 보고를 받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에돔의 적들이 힘을 합쳐 그녀를 치는 것 같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소식을 전하거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사자나 사절을 국가 사이에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에돔 주변 국가로 여행하는 사자들이 전쟁을 위해 군대를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에돔의 시대는 끝났다. 곧 그녀는 심판을 받고 멸망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재촉하신다는 표시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종종 자연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바빌론 사람들을 사용했습니다. 에돔의 멸망과 멸망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위해 계획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one comment to make from today's passage.

The danger of pride

The Edomites were a proud and prideful people. In their houses and fortifications carved out of rock they thought they were safe. No one could touch them. They could act exactly how they wished without there being any consequences. They were about to find out how wrong they were. God is

merciful and often very patient but eventually that patience expires. There are nations today that think they are untouchable. They think that they can bully others and do just as they please. The Chinese communist party for example thinks it can carry out genocide on the Uighur people and there is nothing anyone can do about it.

In almost every country around the world abortion is legal and often encouraged. In the UK in 2019 there were just over 207,000 babies murdered. Don't be foolish enough to think that God is just ignoring this. God is merciful and often very patient but eventually that patience expires. Do not be naïve, there are always consequences for the things we do or the things we permit others to do.

And in our own lives we are frequently prideful and proud. We cling onto sinful habits and think God is either not noticing or unwilling to act. We forget that there are consequences often serious ones for the sins we commit. God is merciful in forgiving us our sins when we repent but that does not mean that our sinning comes without consequences. Let us then beware of our pride. The place to be is down on our knees confessing our sins and seeking God's mercy. Let us remember that God is always watching us and try and live lives that bring honor and glory to Him and not shame on us.

생각해야 할 것들

오늘본문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

자존심의 위험

에돔 사람들은 교만하고 교만한 민족이었습니다. 바위를 깎아 만든 집과 요새에서 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결과 없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종종 매우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 그 인내는 끝이 납니다. 오늘날 자신들을 불가촉천지로 생각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공산당은 위구르인들을 대량 학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누구도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낙태는 합법이며 종종 권장됩니다. 2019년 영국에서는 207,000명이 넘는 아기가 살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무시하신다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종종 매우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 그 인내는 끝이 납니다. 순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허용하는 일에는 항상 결과가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서 우리는 자주 교만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죄악된 습관에 집착하고 하나님이 눈치채지 못하거나 행동하기를 꺼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르는 죄에 대해 종종 심각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자비로우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결과 없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만을 조심합시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그분께 영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